

제2강 교회 임원의 역할

현대교회 담임목사 박행신

교회는 신자들 중에서 임원을 선택하여 임원회를 조직하고 교회에 봉사하게 한다. 교회 임원은 개인생활이나 가정생활, 사회생활에서 소금처럼 녹고, 촛불처럼 희생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임원의 생활은 모든 교인에게 모델이 되며, 교회 부흥에 큰 영향을 주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임원으로서 올바른 생활 자세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임원의 개인생활

임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생활이다. 개인생활이 바로 되지 못하면 다른 생활을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다. 임원의 개인생활은 각자가 가져야 할 경건의 생활을 말한다. 개인의 경건에서부터 가정의 구원이 성취되며, 백성을 구제하는 사회생활로 발전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 하더니...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행10:2~4)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한다.

- 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과 기도생활이다.(행 2:47, 눅 11:1~2)
- ②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상고(相考)하는 것이다.(행 17:11)
- ③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딤후 4:1~2)

1) 기도

개인의 경건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기도 장소는 소속된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 하며, 기도 시간은 새벽 시간이 좋다. 그러므로 본교회의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기도의 본이 될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며 신령한 대화다. 기도는 호흡과 같기에 기도를 쉬거나 중단하면 허약해지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잃게 된다. 따라서 임원들은 기도의 필요성을 재 인식하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 세 가지를 부탁하셨다.

- ① 기도하라.(마 6:9~13)
- ② 세례를 주라.(마 28:19)
- ③ 성찬을 행하라.(마 26:26~29)

2) 성경 공부(말씀, Bible)

임원의 개인생활에서 ‘말씀을 보고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기도가 호흡이라면, 성경은 양식(요 4:34)이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눅 24:45) 이 짧은 성구는 우리에게 큰 뜻을 암시한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 24:32)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사명을 이해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계1:3) 이렇듯 임원의 경건생활에서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 지키는 행위는 중요하다.

① 말씀읽기(진리를 발견하는 생활)

첫째, 날마다 읽어야 하며 많이 읽어야 한다. 한 글자, 한 글자를 분명하게 읽어 나가며 뜻을 생각하고 진리를 발견해야 한다. 수 없이 반복하여 읽으며 성경의 뜻과 내용을 깨닫기 위해 계속 연구해야 한다.

둘째,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읽어야 한다. 성경은 인간의 열심과 지식의 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음이 열려야 깨달을 수 있다. 따라서 성경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읽어야 한다.

셋째, 올바른 지도를 받아 읽어야 한다. 성경은 깊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기에 올바른 지도를 받되 반드시 담임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말씀듣기(진리를 체험하는 생활)

시편 기자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시143:8상)라고 노래한 것처럼 고요한 아침에 말씀을 듣는 생활은 매우 중요하다.

첫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게 된다.

둘째, 성경을 읽고 들을 때에 나에게 교훈하는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을 들을 때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겸손히 받아들일 때 큰 은혜를 받게 된다.

셋째, 목회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는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설교를 들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갖는다.

-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경건의 태도로 듣는다.
- 예배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여 기도한다.
-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한다.
-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 하는 것으로 알아야 한다.
- 은혜에 대한 응답, 즉 헌신을 결심한다.

③ 말씀 지키기(진리를 실천하는 생활)

성경을 많이 읽고 진리를 발견하고 듣는 체험을 했어도 말씀을 지키는 생활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임원들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들은 사람들이다. 이제 말씀을 지키는 생활만 남았다. 그것은 받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그 응답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재물로 드리는 행위다.

3) 전도

기도, 성경읽기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도'다 기도하면 성경을 읽게 되고, 성경을 읽으면 전도하게 되고, 전도하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는 호흡을 하고, 성경이라는 음식을 먹으면서, 전도라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신앙은 병들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임원은 전도에 대한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시간과 공간을 넘는 그리스도인의 지상과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다. 증거는 선택의 여자가 없는 절대적인 명령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행1:8)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행4:12)는 확신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제일가는 사명임을 알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는 일(딤후4:1~2)에 힘써야 한다.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롬 10:10)고 했으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 이로다'(고전 9:16)라면서 사명 맡은 전도인의 삶에 대해 피력하였다. 이렇듯 전도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이며 씨를 뿌리는 행위로, 생명을 구원하는 고귀한 일이다.

2. 임원의 가정생활

임원이 개인적으로 온전하고 경건한 생활을 지속한다 해도 가정생활에 실패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가정은 육신의 요람이며 정신의 안식처다. 그러므로 언제나 애정과 행복이 넘쳐야 한다.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임원의 가정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뜻을 성취하는, 둘도 없는 거처다.

또한 가정은 가장을 중심으로 개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조직체이며 사랑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생명의 관계이다. 부모에게는 존경과 순종으로 부부사이에는 애정으로, 자녀에게는 자애로, 형제 사이에는 우애로, 친척 사이에는 협조와 겸손과 깊은 이해로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잉태하고 성장하는 보금자리이다. 특히 기독교 가정은 사랑을 실천하고 상호 신뢰하는 영혼의 안식처이다.

1) 성공적인 가정

가정생활은 성공적으로 이끌면 다음 세 가지에 주력해야 한다.

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된 가정이다. 이사한 가정을 심방할 때 십자가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주는 것은 이 가정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이익을 중심으로 한 가정, 명예를 중심으로 한 가정, 물질을 중심으로 한 가정이 있으나, 교회 임원의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교육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임원은 어떤 경우든 온 가족이 신앙을 고백하게 인가귀도 시켜야 한다. 온 가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 때 그 가정에는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② 가정예배를 드려야 한다.

주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부모는 제사장이 되어 가족의 신앙생활을 지도해야 한다. 가정 예배를 통하여 가족의 화목을 유지하면서 찬송과 기도가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 가정을 제단 삼아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화를 이어갈 때 그곳이 지상 낙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임원의 가정은 날마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 믿음과 사랑이 꺼지지 않게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한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펠전은 “많은 대적이 제단의 불을 끄려고 한다. 그러나 그림자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제단에 기름을 부어 더욱 큰 불길을 일으켜 준다. 그러므로 아침마다 성경의 나무를 더하고, 기도의 바람을 보내어 제단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였다. 가정의 예배는 화평의 원천이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임을 깨달아 온 가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경건한 가풍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 교회는 가정예배를 쉼(Shimm)이라고 부른다. 쉼(Shimm)이란, ‘기억’이라는 뜻을 가진 쉼족어이다. 현대교회의 모든 가정은 가족예배 Shimm(쉼)을 실천해야 한다. 쉼(Shimm)은 이스라엘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며, 또한 현세대(부모와 자식을 포함)가 조상들이 물려준 신앙의 유산을 기억해서 공동체(교회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예배는 이러한 쉼(Shimm)을 구현하는 자리이다. 동시에 가족예배 쉼(Shimm)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영적인 안식으로서의 쉼(영적휴식)을 이루는 공간이기도 하다.

③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경험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시련이 면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으로 이기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임원들이 믿음으로 생활할 때 지켜야 할 요소가 있다.

-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에만 부부 관계나 자녀 관계가 주종 관계에서 평등 관계로 묶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기는 가정이 될 수 있다.
-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의 뜻이 실현되도록 힘써야 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모두가 그의 지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 가정의 화평을 위해 서로 양보하며 용서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도록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2) 자녀교육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는 그들을 위탁받은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무조건 방임해도 잘못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소유라고 생각하여 무조건 방임해도 잘못이다. 자녀 교육에 대한 태만은 큰 죄악 가운데 하나다. 바울은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엡 6:4)고 하였다.

- ① 자녀의 신앙 지도는 모태에서 시작한다.
- ② 영아 세례를 반드시 받게 한다.
- ③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 계획을 수립한다.
- ④ 교회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지도한다.
- ⑤ 반드시 한 교회를 중심으로 지도한다.
- ⑥ 부모로서 가정에서의 생활이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3. 임원의 사회생활

사회란, 개인을 단위로 하여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 구성된 조직이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지칭하는 이유는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시민이 동시에 한 사회의 시민이다. 그러므로 교회 임원들이 사회생활을 통하여 기독교 윤리 강령인 사랑을 실현할 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강한 사회로 변화될 것이다.

1) 임원이 사회생활에서 갖추어야 할 요소

- ① 진실

임원은 과거 경험이나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기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의 진실성 여부가 문제다. 임원의 사회생활에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으로 신임을 받아야 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평가받아야 하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성경에서도 믿는 사람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행 2:27)라고 하였고,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행 11:26)고 하였다. 이는 진실이 있는 곳에 새로운 역사 창조가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② 책임

임원은 교인인 동시에 선량한 시민이기에,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가져야 한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웃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와 평화가 구현되는 사회가 되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 첫째, 생명에 대한 책임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마 16:26)고 하셨다. 임원은 어떤 생명이라도 평등하게 존중하는 일에 책임을 가져야 한다.
- 둘째, 인권에 대한 책임이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 18:4)고 하셨다. 사람이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무서운 죄가 된다. 변자, 불구자, 가난한자, 창녀, 노소, 귀천을 막론하고 사랑하신 것은 인권을 옹호하신 증거다. 인격이 평등하게 존중되는 곳에 참다운 사회가 건설되기 때문에 임원은 인권존중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
- 셋째, 자유에 대한 책임이다. 주님은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고전 7:22상)라고 하였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갈 5:13)라고 하였으며,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고 하셨다. 자유는 인간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보장된 것이기에 세상 어떤 것도 인간의 자유를 유린하거나 빼앗을 수 없다.
- 넷째, 병든 사회를 치유케 하는 책임이다. 임원은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혼동이 있는 곳에 질서를, 불의가 있는 곳에 정의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불신이 있는 곳에 신뢰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심어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래서 병든 사회, 파괴된 사회를 회복시키고 변혁시키는 치유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책임이 있다.

③ 모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신다며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범을 보여 주셨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며 믿음과 생활의 모범이 되었다. 그러면서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

도의 향기'라고 하였다. 이런 점에서 임원은 일터에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 사회생활에서 임원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사명을 의무로 알고 실천한다. 쉬운 일은 내가 하고 어려운 일은 남에게 맡기면 모범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임원생활은 희생이 동반되어야만 한다.
- 둘째, 겸손한 마음으로 꾀은일을 참는다. 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예수님의 희생정신이다.
- 셋째, 무슨 일이든 주님의 일로 알고 봉사한다.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하나임의 뜻이 있는 줄 알고 기쁨으로 봉사한다.